

예수수난(성지)주일

기도서	275면 (C해)
제1독서: 이 사	50, 4-7
제2독서: 필립	2, 6-11
복음: 루가	23, 1-49
후	22, 14-23, 56

# 숨정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가 23, 46).

□ 강론



## 침묵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

한정현 신부

우리 인류는 오늘도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세계적인 식량난으로 굶주림과 영양부족에 허덕이는 5억 내지 15억의 인간군상, 멕시코 대지진이 빚은 참사, 콜롬비아의 화산폭발과 산체스 양의 죽음, 그리고 아우스비츠 수용소의 잔학상과 빛고을의 참혹한 사태 등은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일련의 사태 및 사건들이다.

이처럼 고통스런 상황과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참으로 계신다면 우리 인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외면한채 침묵을 지킬리가 없어. 더구나 산체스양과 같은 죄없는 어린이들이 처참한 고통속에서 무수히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려는 정말 없어!"라고 부르짖으며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당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감추시고 당신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숨어계시므로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숨막히는 갑갑함을 체험하도록 만드신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이러한 침묵과 숨어계심이,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의 고통하고도 처절한 부르짖음과 눈물흘리심(히브리 5:7)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절정에 달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인류의 고통스런 현실 앞에서와 심지어는 당신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수난 앞에서의 하느님의 이러한 침묵과 숨어계심이 곧 인간을 향한 절교선언이자 인간에 대한 외면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침묵과 숨어계심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의 삶, 그리고 필시는 그분의 부활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오늘날 인간들은 보통 하느님을, 고통당하는 인류의 절규에 응하여 그때그때마다 침묵을 깨뜨리고 모습을 나타내어 인간앞에 대령하는 그러한 하느님으로 그려놓곤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한 하느님을 원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하느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불경스런 짓을 곧잘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 부리는 로보트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성서는 오히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느님, 모습을 감추고 숨어계신 가운데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숨어계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못알아듣는 사람은 제 아무리 교회의 모든 신조를 학자만끝나 안다해도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시몬느 베이유의 말에서 침묵의 하느님을 묵상케 한다. (대야 주임신부)



## 같은 패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사람들은 그들의 겂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에 퍼놓고 기쁨에 넘쳐 소리높여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러나 그들은 몇일 못가서 빌라도의 명령에 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이다. 그러했던 그들은 숨을 거두신 예수를 보고 나서야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죄없는 사람이었구나!"는 고백과 더불어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제1공화국 시절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는 계속 집권을 위해 위헌을 무릅쓰고 4사 5일 개헌까지 해낸다. 이에 시민들은 그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어 등장한 장면 박사의 제2공화국은 1년도 안되어 군사정권에 의해 막을 내린다. 헌정을 중단시킨 군사정권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3공화국을 세운다. 이때 전체 유권자의 51.1% (투표자의 60%)가 지지해 주고, 소위 3선개헌 때에는 유권자의 50.2% (투표자의 65.1%) 동조를 얻는다. 장기집권을 획책한 박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국민에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유권자의 84.1% (투표자의 91.5%)가 지지를 보낸다. 10·26이후 박정권이 무너지자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침을 뱉기던 사람들은 유신헌법을 비난한다. 제5공화국 헌법은 광주사태의 아픔과 계엄하에 유권자 87.5% (투표자 91.6%)의 찬성으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 헌정사를 대충 훑어보다 보면 제4공화국과 그 이후, 유신과 그 이후의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머리를 스친다. 조작된 민의, 힘앞에 무력하기만한 민의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대목이 얼마인가! 좋은 시절에 살게될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국 나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라고 외치던 군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끄럽고 죄스러움을 느낀다.

## 숨정이 산책



금욕 단식재를 잘 지키자

—사순절 묵상—

# 「왜 죄를 고백하는가?」

당신은 훌륭한 시민입니다. 당신에게는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으며 강간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사제에게 음식을 막 먹어치웠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족들과 어떻게 지냈으며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실 가족들에게 냉정했고 동료들에게는 등을 돌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구실삼아 거짓을 말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무거운 짐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당신이 고백을 통해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제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의 성사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줍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고백의 성사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고백은 크리스찬 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 버리고 등한시했으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중간이라고...”

만일 당신이 아주 거룩하지도 않고 또 죄인도 아니라면 주님은 당신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인 당신을 부르러 왔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불사불멸하는 영혼의 완성이라면 기타의 모든 목적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때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을 소위 신앙인인 당신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판공성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므로써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쁜 체험을 가지십시오.

「고백성사는 교회의 성원이 꼭 수행해야 할 지속적인 회심과 삶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열쇠이다. 신앙인은 항상 낮은 것으로부터 새로움으로, 자기 본위에서부터 사심없는 봉사로, 죄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과의 보다 깊은 친교으로 나아가야 한다.」

—편집실—

□성서교설 ④

## 온 무리가 일제히 “그 사람은 죽이고 바라빠를 놓아주소!” 하고 소리질렀다(루가 23:18).

빌라도의 예수심문은 그 자체 별것이 아닐 정도로 간단하나, 그것은 두 가지 삽화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헤로데 심문이고, 둘째는 바라빠 문제이다. 전자(前者)는 루가에만 나오고, 후자(後者)는 대동 소이한 것으로 4복음에 다 나온다.

빌라도가 예수를 특사(特赦) 하려는 기색이 보이자,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기를 쓰고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마태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마태 27:20). 5, 6일전만해도 예수를 환호하면서 영접했던 군중이 이렇게 갑자기 변심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 군중심리라는 것이다. 전에 이들은 예수를 환영했던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알았기 때문인데, 이제 예수가 로마 관헌에 포박되어, 말 한 마디도 못한채, 애처로운 모습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보고 실망을 하는 중에, 대사제들과 원로들한테 선동되어 변심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죽이고 바라빠를 놓아 주소!」(루가 23:18). 언제는 예수가 구세주이고, 언제는 예수가 「죽일놈」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양면성」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예수를 사형선고에 붙인 것은 로마사람들이 아니고, 동족 그것도 종교가들이었다. 유대인의 죄여, 하느님 선민의 수치여!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찬의 경우일지도 모른다. 「신(神)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



**미성** (MISUNG 美星) 성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 · 여행용가방 · 007  
 가방 · 지갑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검 (갈라라)

**대추나무집**  
 각종 탕 일절  
 메기탕 · 백숙 · 보탕 등  
 완주군 구이면 (마음리공  
 소) 성덕다리 옆  
 전화 341-1111  
 진영춘 (바오로)  
 김복순 (가타리나)

**성훈치과**  
 관동도로 사거리  
 (전일관방 2층)  
 ☎ 75-1113  
 최성훈 (빈첸시오)

복수자업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센타**  
 전주주역전오거리 ☎ 3-3032  
 윤베드로 · 황울리아

# 교 구 소 식

- ☆ 주교님 성주간 일정 : 예수수난(성지)주일(23일) - 신촌천주교회  
성주간 화요일(25일) - 동정성모회, 성목요일(27일) 주의 만찬미사 - 인보성체회  
성금요일(28일) 주의 수난 - 부안천주교회, 부활전야(29일) - 삼례천주교회  
예수부활대축일(30일) - 주교좌 성당(전주 중앙)
- 1. 성유축성미사 : 27일(목) 11시, 장소 - 중앙천주교회
- 2. 제6기 혼인강좌 : 일시 - 4월 7일~11일 오후 7시30분  
수강료 - 3천원, 접수 - 4월 3일까지 교육국(☎ 0041)
- 3. 서석구 신부님 출국 : 지난 16일 미국 아틀란트 한인교회 교포사목을 위해 떠나신 신부님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전화번호 변경 : 연지동 천주교회 - 사제관 33-0044, 사무실 33-0898  
시기동 천주교회 - 사제관 32-3232, 사무실 2-2169, 수녀원 32-5777
- ✦ 주의 : 지난 18일 김진소 신부님 모친 한요안나(75세)께서 자택에서 선종하셨습니다. 망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제 2기 신앙대학 학생모집

- 1. 원서교부 및 접수 : 26일까지 교육국
- 2. 수료기간 : 1년 2학기, 1학기 - 4월~6월, 2학기 - 9월~11월
- 3. 수업일시 : 매주 화·수요일 오후 6시30분~9시30분
- 4. 정원 : 80명
- 5. 수강료 : 월 15,000원 (1학기 45,000원)

※ 가정기도 독서 : 필립비 2:1~5 복음 : 요한 12:24~26

### ♣ 잠깐!

#### 오늘은 특별헌금의 날

사순절 동안의 단식과 절제 그리고 회생의 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으는 날이다. 특별히 오늘의 헌금은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 쓰여진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형제적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교회는 활성화되어 구원하는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될 것이다.

작은 뭉치라도 이웃과 나누자. 하느님이 주시는 더욱 큰 뭉치를 위해서.....

#### 매주 특별지향할.....노송분당

교구내 모든 본당이 교구 사무지침에 따라 진정한 신앙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주 노송분당에서는 매주마다 특별지향에 따라 신앙생활을 노력하고 있다.

성체현시와 강복이 거행되는 성체주간, 성인을 본받아 신앙증거를 특별히 노력하는 증거주간, 사제 수도 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소주간, 가정의 성화를 위해 기도와 노력하는 가정주간 등, 매주 신부님의 강론때 제시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지향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 신앙을 실생활에 구체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또한 특별히 직장과 밖의 일로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기 쉬운 아빠들을 위한 「아버지 미사」시간을 새로이 마련, 아빠들의 신앙심을 추스리고 신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 오히려 엄마들이 좋아한다고.....

모범적인 신앙공동체의 본당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발전있길.....

## 요심이 (659) 김병오

열마전 정부고관의 외국 순방성과는 눈꼽만큼 보도하고

이혼경력이 있는 영화인의 탈출이야기는 하루종일 방송하니

그렇다면...

고관들은 외교성과는 없이 외국구경만하고 왔었나?

### 생명을 바친 젊은 사제의 이야기

#### 부업이가 내 이름을 불렀네

M·크레이븐/김 정

시한부의 젊은 사제가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참 이웃으로 동화되는 감동어린 이야기

값 2,000원

성바오로 출판사

성바오로서원 ☎ 3398

### \* 개 원 \*

## 김생기 산부인과 의원

전주시 고사동 1가 25번지  
(신라당 옆, 윤호영의원 내)

☎ 6-6077

전문의 김 생 기 · 신 수 미(설비아)

###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 소홍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홍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 사 원 모 집

- 1. 응모자격 : 남 25세 이상 (고졸)
  - 2.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1통, 군 병역필한 자
  - 3. 기간 : 3월24일~29일 (서류지참 직접 내사)
- 동양섬유공업사**  
(교보빌딩 뒤편 2층)  
☎ 3-9340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가정주강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
하여 가정애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가족기도회 철저히 하세요)
2. 성주간 행사안내: 주의 만찬미사-27일 저녁 8시(20
시부터 두엄제대 조배), 합동 십자가의 길-28일 오후
3시 주의 수난예절-28일 저녁 8시, 부활전야미사
-29일 10시, 각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축! 영세식: 29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각 구역장님들, 각 단체의 간부
님들 함께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판공성사: 중고학생들-오늘 오후 2시부터, 남
노송동-24일 오전 9시, 유아동-24일 오후 2시, 중
노1가동-25일 오전 9시부터, 기타-26일 오전 9시
※ 성사주는 시간은 오전 9시~12시까지, 오후 2시
~5시까지입니다
5. 부녀회 월례회: 25일 어머니미사 후
6. 2차헌금일: 오늘은 특별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21일의 단식, 금육의 뉘과 같이 봉헌하세요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금주의 전례담당: (제5조) 해설-이종관
독서-봉헌-김정환 부부, 신자기도-이운우 부부
꽃불봉헌-서미란 전영순,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9. 자모회 임원임명: 회장-조은희, 부회장-이미자
서기-권영옥, 회계-안한훈 수고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507,600원 교무금: 315,300원
신축헌금: 45,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축! 부활대축일: 30일(다음주일) "알렐루야"
미사 주일과 같은(첫미사-새벽 6시, 학생미사-오
전 9시, 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어린이미사-오
후 3시, 저녁미사-저녁 7시)
2. 영세식: 29일 오후 3시
(대부모와 같이 30주전에 와서 준비 바람)
3. 24일(내일)부터 성주간: 미사-저녁 8시~29일까지
새벽미사-어머니미사 없음
4. 특별헌금: 오늘(23일) 정성을 다해 장애자 도움시다
5. 성주간 예절: 유인물 참조
(성삼일-27일·28일·29일, 전신자 참석 바람)
6. 대학생 모임: 23일 오후 4시
본당내 전대학생 빠짐없이 참석 바람
7.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셋벨Pr
차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8. 금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강찬준 ②강진희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 지난주 봉헌금: 250,860원 교무금: 540,850원

(삼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 성삼일 행사안내
성목요일: 오후 7시30분-만찬미사 및 세족례
성금요일: 오후 3시-십자가의 길, 오후 7시30분-십
자가 경배
성토요일: 오후 8시-빛의예절, 부활전야미사
1. 오늘은 성지주일: 성지가지 축성있습니다
2. 2차 공동헌금
3. 청년회 정기총회: 공식미사 후
※ 금년 교교졸업생은 꼭 참석바랍니다
4. 순정이 은인: 여정진형제 2주분 봉헌
이수복회장 1주분 봉헌
5. 금주전례: 해설-이옥동, 봉헌-김중석 부부
독서-①황태봉 ②김봉준
차주전례: 해설-문병주, 봉헌-박종권 부부
독서-①황남용 ②최영섭
6. 성수축성: 부활성야, 성수그릇 준비하세요

- 7. 협조 바람: 학생회 부활초 및 부활달걀 판매
□ 지난주 봉헌금: 126,450원 교무금: 7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참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제2성당 주일미사: 오전 9시30분, 오후 2시
2.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3. 자모회 모임: 1일 오전 10시30분
4. 사목회 모임: 3일 오후 8시
5. 봉성체: 매월 첫금요일 오후 3시
6. 감사합니다: 성수기-유마리아, 제대주스빙-김모니
카, 벽식제-김행자, 나무성수대-김광한
7. 춘계 판공성사: 15일~26일까지
※ 19일~21일 손님신부님 성사중
8. 오늘 봉헌: 신영창 부부 차주: 박형식 부부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최창립, 독서-①강경화 ②박병환
공식미사: 해설-남정호·고정수
독서-①김낙균 ②차상렬
저녁미사: 해설-진경선, 독서-①김정민 ②유명환
□ 지난주 봉헌금: 284,975원(제2성당: 102,680원)
합계: 387,655원 교무금: 247,000원
미수금: 105,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범 오

- 1.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3. 사순절 9일기구: 17일~26일 오전5시30분, 치명자산
4. 전신자 1일피정(예비신자 포함): 24일 오전 9시30분~
오후 5시, 참가비-1천원(점심, 필기도구 제공)
강사-김병운·김봉희 신부
지침물-성서·성가집·기도서·묵주·미사포
※ 각신심단체 회원께서는 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5. 아치에스 행사: 25일 오후 3시
대상-전동소속 레지오 전단원
6. 감사: 성심상 주현 나무성수에 협조하여주신 여러분께
-성화회, 김치상신부님, 김병오, 최필지, 최순이
7. 성주간 일정: 27일(성목요일)-오후 8시
28일(성금요일)-오후 8시
29일(성토요일)-오후 7시(영세식),
오후 12시(전야미사)
8. 다음주 봉헌담당: 신일균 부부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병오 ②정진훈
□ 지난주 봉헌금: 885,180원 교무금: 583,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부활판공·공동 보속: 갈라디아서를 3번씩 읽고 묵
상함
※ 판공성사-22일~26일 저녁 7시30분부터
2. 성삼일(목·금·토) 전례시간: 저녁 8시부터
3. 호자동 울뜨레아 임원개편: 회장-황희상
부회장-김형호·김은자, 총무-오기수
회계-문옥선
4. 중·고 예비자교리: 일요일 오후 5시30분
5. 사목방문: 25일-우진아파트
6. 주부 서서대학: 26일 오전 10시(갈라디아서 전체)
7.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522,230원 교무금: 409,000원